

전주매일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익산시 무암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음 8월 30일) 제19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 ... **전주비빔밥축제** 26일부터 5일간

다채롭고 풍성한 콘텐츠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2017전주비빔밥축제'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차려진다.

선기현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장과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18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되는 '2017전주비빔밥축제'의 주요프로그램과 올해 축제의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공모로 선정된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비빔밥축제는 5개 분

비빔밥'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다.

또한, 일반 시민과 업소가 참여해 비빔밥 솜씨를 겨루는 '우리집 비빔밥'은 모두가 함께 축제 속에 빠져들어 틀에 박힌 비빔밥이 아닌 나만의 특별한 비빔밥을 만들어 보고 나누어 볼 수 있는 행사로 펼쳐질 예정이다. 게임을 통해 재료를 획득 후 비빔밥을 완성하는 '비빔밥을 찾아라!'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올해 축제에서는 △비빔밥의 3가지 유래인 '농민기름밥설'과 '동학농민설', '궁중음식설'에 대한 상황극을 체험하고 전설

이다. 또, 세계음식푸드존에서는 국내 다문화가정(아시아존)과 유럽존에서 참여한 11개국, 16개팀이 24가지 특별한 각국의 음식조리를 시연하고 맛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전주음식 명인(페백)인 신복자 여사가 직접 운영하는 페백한국이 운영돼 페백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전주 술박물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통주 빚기 체험 코너가 마련돼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은 전주비빔밥과 잘 어울리는 모주와 각종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나아가,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식탁, 식기, 테이블보, 조명 등을 우아하게 차려 식탁의 품격을 더해 주는 '전주테이블웨어' 전시회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음식 고유의 맛과 함께 눈으로 먹는 즐거움을 더해줄 예정이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행사장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버싱킹 공연'이 진행되며, 다양한 테마별 테이블웨어 및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전주 미식 테이블웨어', 대장급, 요리사 등 다양한 의상을 체험하며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코스프레 포토존', 다양한 전주시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념상품 마켓' 등도 마련된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에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주한외국인 SNS기타단을 활용해 비빔밥축제를 전 세계에 홍보해왔으며, 서울 남산타워의 LED 전광판과 안내데스크 발광포스터 등을 활용해 전주비빔밥축제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김민근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서 개최... 5개 분야 38개 프로그램 운영
신나는 쿡방 등 주요 프로그램에 장애인도 참여토록 보완
시민 참여 '우리집 비빔밥' 등 올해 주요 프로그램 손꼽혀

야 3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예년보다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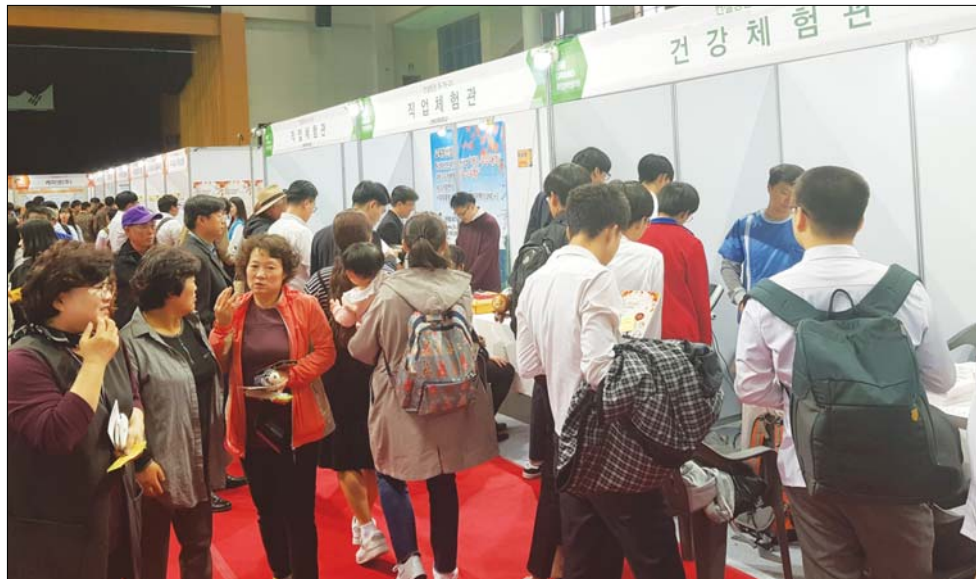
특히, 전주시장애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모여라 비빔밥 △우리집 비빔밥 △비빔밥을 찾아라 △비빔밥 전설 △산나는 쿡방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장애인도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비빔밥 뿐 아니라 세계음식문화 선보이는 분야가 확대되고, 페백나라와 전통주 빚기 등 독특한 전주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된다.

먼저, 개막행사로 펼쳐지는 '대동비빔퍼포먼스'에서는 전라북도 특산품을 이용해 주변의 고마운 분들과 함께 만드는 대형비빔퍼포먼스가 연출돼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또, 전주시 33개동 주민들이 만든 각양각색 비빔밥들이 객사 앞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33동 우리동네

속 비빔밥을 맛보는 '비빔전설' △어린이 1,000여명이 요리사가 돼 비빔밥을 즐기는 '응기응기 비빔밥' △취향대로 골라 즐길 수 있는 음식체험 '산나는 쿡방' △행사장 정원에서 100여 가지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맛있는 정원' △음식관련 학생과 전문가 900여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는 '전국요리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또 △아시아권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셰프의 '쿠싱콘서트' △세계 각국의 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세계거리음식 푸드존' 등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쿠싱콘서트에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인 중국 청두의 셰프가 초청돼 고유음식을 직접 제조하고 시연하며, 베트남 호치민시와 일본 카시하라시가 함께 참여할 예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디에?" 18일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2017 정읍시 브랜드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이날 박람회장에서는 구직자들이 복색통을 이었다. 사진은 구직자들이 각종 부스 앞에서 졸을 서고 있는 모습.

18일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2017 정읍시 브랜드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이날 박람회장에서는 구직자들이 복색통을 이었다. 사진은 구직자들이 각종 부스 앞에서 졸을 서고 있는 모습.

군산항 한·중카페리 운항횟수 확대 추진

도, 해운회담 내년 1월 중국 곤명 개최 예정 따라
주 3회에서 6회로 증편... 군산항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이 2018년 1월 중국 곤명에서 개최 예정됨에 따라 전북 유일의 중국 직항로인 '군산~중국 석도 간 한중카페리' 운항횟수 증편(주 3회 → 주 6회)을 본격 추진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8년 4월 취항한 군산항 한중카페리는 중국 석도를 주 3회(화·목·일) 운항하며 불동량(최근 8년간 2.4배 증가) 2009년 1만5,085TEU → 2016년 3만 6,255TEU)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올해는 사드 여파로 한중 관계가 경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은 19%, 화물은 1%가 증가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선박(화물)은 50회, 4천TEU 이상이 타 항만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중국발 일본항 환적화물이 2010년 1,605TEU에서 2016년 7,746TEU로 약 4.8배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량 부족으로 화물 유치가 곤란한 상황이 있다.

또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한중카페리 수도권 편으로 심화된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주 6회로 운항횟수 증편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군산~석도간 한중카페리 운항횟수 주 6회로 증편을 군산시 및 지역정치권과 공조로 추진했다.

제24차 한중해운회담(2016.8월)에서 군산~석도항로 추가 투입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투입시기 등은 차기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국 정부간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해양수산부-지자체 해양수산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장관 군산항 방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제25차 한·중 해운회담' 일정계획이 예정됨에 따라 군산항 한중카페리 주 6회로 운항횟수 증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중국 석도간 한중카페리 운항횟

수 확대'가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군산시 및 지역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항 카페리 운항 선사인 석도국제해운(주)은 1만9,950톤 규모로 승객 1,200명과 컨테이너 250TEU 적재가 가능한 신조선(NEW SHIDAO PEARL)을 투입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국민연금공 국감, 오늘 전주본부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9일 전주 본부에서 진행된다.

국민연금은 이사장 대행체제라는 국감을 수행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로 문형표 전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구속 수감되면서 불명예 퇴진하고 지난 10개월 이원희 기획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벌어진 국정감사 사태에 연루돼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스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화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주최 **전라북도** |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ILJIN** | **일진그룹**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감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외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7년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년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감암서예관	감암 송성윤전	